



KWC 2020 공식 글라스 자페라노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20 공식 글라스로 선정된 자페라노 에스페리엔제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치러진 KWC 심사 현장에서 시음 글라스로 사용됐다. 인상적인 외관과 우수한 성능에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뒤따랐다. 글 최준영 사진 장영수

에스페리엔제는 이탈리아의 유명 글라스웨어 브랜드인 자페라노를 대표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 자페라노의 오너이자 글라스 디자이너인 페데리코 데 마요가 직접 디자인했다. 잔 바닥에 둘러진 물결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소용돌이를 연상시키는 에스페리엔제의 물결무늬는 와인을 스윙링할 때 잔과 와인의 접촉 면적을 넓혀 와인이 가진 향과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와인이 가진 특성을 단시간에 드러내, 에스페리엔제는 시음 잔으로 활용도가 높다. 겹겹이 쌓인 무늬의 층에 따라 와인 색을 달리 관찰할 수도 있다. 자페라노 글라스는 KWC 2017과 이탈리아 와인 품평회인 비니탈리(Vinitaly) 등에서 공식 잔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에스페리엔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 KWC 2020에서도 공식 와인 글라스로 활용됐다. KWC 2020 본선과 결선 대회 현장에서 에스페리엔제를 사용하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심사에 사용하던 잔보다 표현력이 월등하며 모두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잔을 유심히 뜯어보면서 자신의 업장에서 쓸 수 있을지 검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당일 심사가 끝난 뒤 고압 직수를 사용하는 세척기로 잔을 여러 번 세척하는 과정을 일주일간 반복했지만, 단 하나의 글라스도 파손되지 않아 에스페리엔제의 우수한 강도가 증명되기도 했다. ☎ 수입사 와이넬 문의 02-325-3008